

학교와 유치원에서 질환 관리하기

코로나바이러스 (COVID-19)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아무리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집에 있는 것입니다.

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

자녀가 몸이 아플 때는 아무리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합니다

낮 동안에 자녀가 몸이 아파지면, 반드시 학교/유치원 (ECEC)에서 가능한 빨리 자녀를 픽업하셔야 합니다.

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(COVID-19)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, 아무리 증상이 경미하더라도, 반드시 검사를 받고,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녀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합니다

- 고열
- 오한이나 땀
- 기침
- 목 따가움
- 숨가쁨
- 콧물
- 후각이나 미각 상실.

일부 경우에는 두통, 근육통, 코막힘, 구역질,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

더 자세한 조언은:

- 24 시간 코로나바이러스 (COVID-19) 핫라인 1800 675 398 에 전화하십시오
- 일반의 (GP)에게 전화하십시오
- 보건부 (Department of Health - DHS)의 [온라인 자가 평가 도구](#)를 사용하십시오.

방문하십시오: [코로나바이러스 검사장](#).

코로나바이러스 (COVID-19)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,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녀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합니다

코로나바이러스 (COVID-19) 검사 결과가 양성 으로 나오거나, 확진자와 가까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면, DHS 로부터 격리 해제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격리해야 합니다.

건초열이나 천식과 같은 기저 질환으로 인해 이러한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은 계속 ECEC/학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. 기저 질환의 일반 증상과 다르거나, 그 증상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COVID-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COVID-19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, ECEC/학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GP로부터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어린 아이들 (프리스쿨부터 2학년까지)의 경우, 콧물이나 기침과 같은 바이러스성 증상이 오랫동안 나타나더라도, COVID-19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,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학교/ECEC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GP로부터 어린이에게 건강 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거나, 또는 급성 질환으로부터 회복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.

다른 질환으로 인해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집에 있어야 하는 최소 기간에 대한 정보는 [DHS 학교 출석 면제표](#)를 참조하십시오.

어린이들의 경우 학교/ECEC에 다시 등교하기 전에 의사 소견서가 필요치 않습니다

일단 증상이 사라졌다면, 학교/ECEC에 다시 등교하기 전에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라는 보건 및 주민 서비스부 (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)나 DHS의 별도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.

이러한 조치들을 준수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함께 안전을 도모합니다.

이 조언은 교육 및 훈련부 (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), 빅토리아 안전 의료 서비스 (Safer Care Victoria) 및 보건부 (Department of Health)가 제작했습니다